마녀의 집의 꿈

The Dreams in the Witch-House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3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Dreams in the Witch-House" (Weird Tales 1933년 7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녀의 집의 꿈

수학과 마녀술, 그리고 발푸르기스의 밤을 다룬 이야기. 그 속에서 공포는 서서히 스며들어 몸집을 불려 나간다. 「벽 속의 쥐들」의 저자가 선사하는 새로운 이야기.

그는 변함없는 전설이 깃든 도시, 아컴에 있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마치 옛 시절 마녀들이 국왕의 수하들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들던 때처럼 지붕들은 위태롭게 휘어지고 처져 있었다. 아컴의 그 어느 곳도 그가 머무는 이 박공지붕 방만큼 기괴한 기억에 젖어 있지는 않았다. 이 집과 이 방은 과거 케지아 메이슨이 머물던 곳이기도 했다. 그녀가 세일럼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 일은 1692년에 일어났다. 당시 간수는 미쳐버린 채, 케지아의 감방에서 작은 흰 송곳니를 드러낸 털 뭉치 같은 괴물이 기어 나왔다고 횡설수설했다. 회색 돌벽에 붉고 끈적한 액체로 그려진 기묘한 곡선과 각도들은 코튼 매더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쩌면 길먼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공부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비유클리드 미적분학과 양자물리학만으로도 인간의 지성은 한계에 다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 민속학까지 섞어버린다면 어떨까. 고딕 소설 속 괴기스러운 암시와 벽난로가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속삭임 너머에, 다차원적 실재라는 낯선 배경이 숨겨져 있다고 믿으며 그 흔적을 쫓다 보면 정신적 긴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길먼은 헤이버힐 출신이었으나, 아컴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학을 고대 마법의 환상적인 전설들과 결부시키기 시작했다. 이 오래된 마을의 공기 속에 섞인 무언가가 그의 상상력을 모호하게 자극했던 것이다. 미스카토닉 대학의 교수들은 그에게 공부를 좀 쉬라고 권고했고, 몇 차례에 걸쳐 그가 듣는 강의 수를 자발적으로 줄여주기도 했다. 게다가 대학 도서관 금고에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금지된 비밀을 다룬 의심스러운 고서들을 찾아보지 못하도록 만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예방 조치는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길먼은 이미 압둘 알하자드의 공포스러운 『네크로노미콘』과 단편적인 『에이본의 서』, 그리고 폰 준츠의 금서 『말할 수 없는 의식』으로부터 끔찍한 암시들을 접한 상태였다. 그는 이제 공간의 특성과 알려진 차원 및 미지의 차원 사이의 연결성을 다루는 자신의 추상적인 공식들을, 그 기괴한 기록들과 대조하며 파고들고 있었다.

그가 머무는 방이 오래된 마녀의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점 때문에 이 방을 빌린 것이기도 했다. 에섹스 카운티의 기록에는 케지아 메이슨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남아 있었는데, 압박 수사를 받던 그녀가 재판소에서 자백한 내용들은 길먼을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료시켰다.

그녀는 해스쏜 판사에게 기묘한 선과 곡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선과 곡선들을 이용하면 공간의 벽을 뚫고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메도우 힐 너머의 하얀 돌

이 있는 어두운 계곡과, 강 위의 인적 없는 섬에서 열리는 한밤중의 모임에서 그러한 선과 곡선들이 자주 사용된다는 암시를 남겼다. 그녀는 검은 사나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맺은 맹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하브라는 새로운 비밀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감옥 벽에 그 기묘한 문양들을 그려 넣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길먼은 케지아 메이슨에 대해 기이한 믿음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거처가 235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아컴의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온갖 괴담을 속삭이곤 했다. 케지아 메이슨이 그 오래된 집과 좁은 골목길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 그 집과 다른 집들에서 잠자던 어떤 이들의 몸에 정체 모를 인간의 치아 자국이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 5월의 전야와 할로마스 무렵이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끔찍한 절기들이 지나고 나면 오래된 집의 다락방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긴다는 이야기 말이다. 또한, 그 낡아가는 건물과 마을을 배회하며 동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사람들에게 기묘하게 코를 들이미는, 털이 숭숭 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작은 생명체에 대한 소문도 돌았다. 길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 집은 인기가 없고 세를 놓기도 어려워 오랫동안 저렴한 하숙집으로 쓰여 왔기에, 방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길먼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7세기의 평범한 노파가 어떤 계기로 인해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드 시터 같은 현대의 석학들이 파고든 극

한의 영역조차 넘어설지도 모를 수학적 심연을 엿보게 된 바로 그 건물 안에, 자신도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길먼은 종이가 벗겨진 곳을 샅샅이 뒤지며, 나무 벽과 회반죽 벽면 어디에든 기괴한 문양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케지아 메이슨이 주문을 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 다락방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방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 그곳에 오래 머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폴란드인 집주인 또한 그 방을 임대하는 것을 꺼리며 경계해 왔다.

하지만 열병이 돌기 전까지 길먼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음산한 복도와 방 사이로 유령 같은 케지아가 나타나 배회하지도 않았고, 털이 보송보송한 작은 생물이 그의 쓸쓸한 은신처로 기어 들어와 몸을 비비지도 않았다. 끊임없이 뒤졌음에도 마녀의 주문이 적힌 기록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때때로 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포장 골목길을 걸었다. 어둑한 덤불처럼 얽힌 그 길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갈색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집들은 좁고 작은 창문 너머로 비웃음을 던지듯 위태롭게 기울어진 채 서 있었다. 길먼은 이곳에서 과거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기괴한 과거의 흔적들이, 적어도 가장 어둡고 좁으며 복잡하게 뒤엉킨 골목 안에서만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강 위에 떠 있는 불길한 섬으로도 두 차례 노를 저어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이끼 낀 회색 입석들이 이루는 기묘한 각도를 스케치했다.

그 돌들의 기원은 너무나 모호하고 아득하여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길먼의 방은 크기는 넉넉했으나 모양이 기묘할 정도로 불규칙했다. 북쪽 벽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안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낮은 천장 역시 같은 방향을 따라 완만하게 낮아졌다. 쥐가 드나든 흔적과 다른 구멍들을 메워놓은 흔적을 제외하면, 기울어진 벽과 집 북쪽의 직선 외벽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었다. 과거에 통로가 있었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밖에서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에 창문을 판자로 막아버린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천장 위쪽의 다락방 또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기울어진 바닥을 가졌을 그 다락방은 마찬가지였다. 길먼이 사다리를 타고 거미줄이 가득한 다락방 위쪽 공간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과거에 입구가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다. 그 입구는 오래된 판자로 빽빽하고 무겁게 덮여 있었으며, 식민지 시대 목공 방식에서 흔히 쓰이던 튼튼한 나무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해도 무뚝뚝한 집주인은 이 두 폐쇄된 공간을 조사하도록 허락해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먼은 방 안의 뒤틀린 벽과 천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 기묘한 각도들 속에서 수학적 의미를 읽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각도들은 마치 그 형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단서를 제공하는 듯했다. 길먼은 생각했다. 노파 케지아 메이슨이 그런 기이한 각도로 이루어진 방에서 살았던 데에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가 주장하기를, 우리가 아는 공간의 경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 특정한 각도들을 통해서라고 하지

않았던가. 비스듬한 벽면 너머에 존재하는, 끝을 알 수 없는 허공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제 그 벽면들의 목적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쪽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뇌열의 기운과 기괴한 꿈은 2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한동안 길먼의 방에 있는 기묘한 각도들이 그에게 마치 최면을 거는 듯한 이상한 영향을 미친 듯했다. 황량한 겨울이 깊어갈수록, 그는 경사진 천장과 안쪽으로 기울어진 벽이 만나는 모서리를 점점 더 뚫어지게 응시하곤 했다. 이 무렵 길먼은 전공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몹시 괴로워했다. 중간고사를 앞둔 불안감은 극도로 심해졌다.

하지만 예민해진 청각 또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일상의 모든 소리가 참기 힘들 만큼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으로 변해버렸다. 게다가 들릴 듯 말 듯, 마치 삶 너머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듯한 정체 모를 소리들이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며 공포감을 자아냈다.

구체적인 소음 중에서는 오래된 벽 사이를 돌아다니는 쥐 소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때때로 쥐들이 긁어대는 소리는 단순히 몰래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북쪽의 기울어진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릴 때면 마른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경사진 천장 위, 수백 년 동안 닫혀 있던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면 길먼은 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마치 어떤 공포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내려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 꿈들은 제정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길먼은 이 꿈들이 수학과 민속학을 동시에 연구한 결과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공식이 가리키는, 우리가 아는 3차원 너머의 모호한 영역에 대해 너무 깊이 몰두해 있었다. 또한,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케지아 메이슨이 실제로 그 영역으로 통하는 문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녀의 증언과 고발자들의 진술이 담긴 누렇게 변색된 지역 기록들은 인간의 경험을 아득히 넘어선 무언가를 지독할 정도로 암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사역마 역할을 했던, 털이 숭숭 난 작은 생명체에 대한 묘사는 믿기 힘든 세부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칠 만큼 생생했다.

그 물체는 꽤 커다란 쥐 정도의 크기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브라운 젠킨'이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불렀다. 1692년 당시에만 무려 열한 명의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정도니, 이는 집단적 환각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인 듯했다. 최근에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소문들이 돌았는데, 목격자들의 진술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일치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쥐의 형상을 하고 긴 털이 나 있었으나, 날카로운 이빨이 돋고 수염이 난 얼굴은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었으며 발은 마치 작은 사람의 손과 같았다고 한다. 그것은 노파 케지아 메이슨과 악마 사이에서 전령 역할을 수행했으며, 흡혈귀처럼 마녀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랐다. 목소리는 혐오스러운 낄낄거림과 같았고, 세상의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길먼의 꿈속에 나타난 그 수많은 기괴한 괴물들 중에서도, 이 신성모독적이고 작은 혼종만큼 그를 공포와 구역질로 몰아넣은 것은 없었다. 고대의 기록과 현대의 속삭임

으로부터 깨어 있는 정신이 추론해낸 그 어떤 모습보다도,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형상은 천 배는 더 증오스러웠다.

길먼의 꿈은 주로 설명할 수 없는 색채의 황혼과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소음이 가득한, 끝없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는 경험이었다. 그 심연의 물질적·중력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이 길먼이라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걷거나 기어오르지도, 날거나 헤엄치지도, 기어가거나 꿈틀거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의지와 무의지가 뒤섞인 기묘한 방식의 움직임을 느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팔과 다리, 몸통을 보려 해도 기묘한 원근법의 뒤틀림 때문에 늘 시야가 차단되는 듯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자신의 신체 구조와 감각이 어딘가 경이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어 비스듬히 투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것이 평소의 신체 비율이나 특성과는 기괴할 정도로 어긋나 있었을지라도 말이다.

심연은 결코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은 형언할 수 없는 각도로 뒤틀린, 이질적인 색채의 덩어리들로 가득했다. 어떤 것들은 유기물처럼 보였고, 어떤 것들은 무기물처럼 보였다. 그중 몇몇 유기물들은 그의 머릿속 구석에서 막연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조롱하듯 닮았는지, 혹은 무엇을 암시하는지 그는 도저히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없었다.

이후의 꿈속에서 그는 유기물들이 서로 다른 범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각 범주에 속한 존재들은 행동 양식과 근본적

인 동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종처럼 보였다. 그 범주들 중 하나는, 다른 범주의 존재들에 비해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덜 비논리적이고 덜 엉뚱해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곳의 모든 사물은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말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길먼은 때때로 무기물들을 프리즘이나 미로, 정육면체와 평면이 엉겨 붙은 덩어리, 혹은 거대한 사이클로피언 건축물에 비유하곤 했다. 반면 유기물들은 거품 떼나 문어, 지네, 살아 움직이는 힌두교 우상, 혹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생동하는 복잡한 아라베스크 문양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가 목격하는 모든 것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고 끔찍했다. 유기체 중 하나가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면, 길먼은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대개는 그 공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유기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는, 그 자신이 움직이는 방식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발견했다. 어떤 존재들은 텅 빈 공간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만큼이나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심연을 가득 채운 비명과 포효, 혼란스러운 소음은 음조나 음색, 리듬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다만 그 소음은 유기물과 무기물을 가리지 않는 정체불명의 사물들이 일으키는 모호한 시각적 변화와 일치하는 듯 보였다. 길먼은 그 불분명하

고도 가차 없이 반복되는 소음의 파동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치솟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하지만 브라운 젠킨을 마주한 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소용돌이 속에서가 아니었다. 그 충격적이고도 작은 공포는, 깊은 잠의 심연으로 빠져들기 직전 그를 덮치는 더 가볍고도 날카로운 꿈들 속에 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억지로 잠을 쫓으며 버티고 있으면, 수백 년 된 방 주변으로 희미하고 은은한 빛이 일렁이는 듯했다. 그러면 보랏빛 안개 속에서, 그의 뇌를 교활하게 잠식했던 기괴한 각도의 평면들이 한데 모여드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때 그 공포가 구석에 있는 쥐구멍에서 불쑥 튀어나와, 푹 꺼진 넓은 판자 바닥을 타고 그를 향해 다다다 달려왔다. 수염이 난 작은 인간의 얼굴에는 사악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다행히도 이 꿈은 그 괴물이 코를 들이밀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언제나 안개처럼 흩어졌다. 놈은 지옥처럼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다. 길먼은 매일같이 쥐구멍을 막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벽 너머의 진짜 거주자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갉아내어 막아버렸다. 한 번은 집주인에게 부탁해 구멍을 양철판으로 못질해 막기도 했으나, 바로 다음 날 밤 쥐들이 다시 구멍을 뚫어 놓았다. 그 과정에서 쥐들은 방 안으로 기묘하고 작은 뼛조각 하나를 밀어내거나 끌어당겨 놓았다.

길먼은 열이 나는 것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시험 공부에 단 한 순간도 낭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대학 양호실로 옮겨지라는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이다. 결국 그는 미적분학 D와 고급 일반 심리학 과목에서 낙제하고 말았다. 하지만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만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3월에 접어들면서, 가벼웠던 그의 초기 꿈속에 새로운 요소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브라운 젠킨의 악몽 같은 형상 곁에, 점점 더 구부정한 노파의 모습을 닮아가는 뿌연 형체가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존재는 길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형체가 예전에 실제로 두 번이나 마주쳤던 노파와 닮았다고 결론지었다. 버려진 부두 근처, 어둡고 뒤엉킨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노파 말이다. 당시 그 마녀가 보여준 사악하고 냉소적이며,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그 시선은 길먼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특히 처음 마주했을 때는, 옆 골목의 어두운 입구를 가로질러 튀어나온 거대한 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브라운 젠킨을 떠올리며 비이성적인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제 그는 그 불안한 공포가 뒤틀린 꿈속에 투영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낡은 집이 불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으나, 초기에 품었던 병적인 호기심이 여전히 그를 그곳에 붙들고 있었다. 길먼은 밤마다 겪는 환상들이 단지 열병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열이 내리면 이 괴물 같은 환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환영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압도적이어서,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었다는 막연한 느낌이 남았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브라운 젠킨, 그리고 그 노파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끔찍할 정도로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

이 자신에게 어딘가로 함께 가자고, 더 강력한 존재인 제삼자를 만나러 가자고 재촉했다는 사실 또한 말이다.

3월 말 무렵, 길먼은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비록 다른 학문들이 그를 점점 더 괴롭히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리만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직관적인 재능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손도 대지 못한 4차원 문제와 여러 난제들을 막힘없이 이해해내어 어팜 교수를 경악게 했다.

어느 오후, 공간의 기괴한 곡률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우주가 지닌 이론적 접점, 즉 우리가 속한 우주와 저 멀리 떨어진 별들이나 은하 사이의 거대한 심연, 혹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연속체 너머에 존재할지도 모를 상상 속의 우주 단위들과 우리 우주가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길먼은 이 주제를 놀라운 솜씨로 다루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비록 그가 제시한 가설적 예시들이 그의 신경질적이고 고립된 기행에 대해 떠돌던 소문을 더욱 부추기긴 했지만 말이다.

학생들이 고개를 내저으며 경악한 지점은 그의 냉철한 이론 때문이었다. 길먼은 인간이 도저히 습득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적인 수학적 지식만 갖춘다면, 우주의 무한한 지점 중 어느 곳에 위치한 천체라도 지구에서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발을 내디뎌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려면 단 두 단계만 거치면 된다고 그는 말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3차원 구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다른 지

점, 어쩌면 무한히 먼 곳의 3차원 구체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은 여러 경우에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3차원 공간의 어느 곳에서 온 존재라도 4차원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살아남느냐는, 그 존재가 재진입할 3차원 공간의 이질적인 지점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떤 행성의 거주민은 다른 행성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다른 은하계에 속한 행성이나, 시공간 연속체의 유사한 차원적 위상에 있는 행성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서로 맞닿아 있을지라도, 서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수많은 천체나 공간 구역이 존재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특정 차원의 거주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영역들은 기존의 시공간 연속체 내부이든 외부이든 상관없이, 추가되거나 무한히 증식된 차원일 수 있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추측의 영역이었으나, 한 차원에서 그다음 높은 차원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변이가 우리가 이해하는 생물학적 온전함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큼은 꽤 확실해 보였다. 길먼은 이 마지막 가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모호함은 다른 복잡한 지점들을 명쾌하게 풀어낸 실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특히 어펌 교수는 길먼의 논증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고등 수학이, 인류 혹은 인류 이전의 존재들이 남긴 어떤 마법적 지식과 혈연관계에 있다는 그의 증명 말이다. 그 아득한 고대의 존재들은 우주와 그 법칙에 대해 인간보다 훨씬 거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4월 1일 무렵, 길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미열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 함께 하숙하는 이들이 그의 몽유병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도 그를 괴롭혔다. 길먼이 밤마다 침대에 없는 일이 잦은 듯했고, 밤중 특정 시간마다 들리는 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아래층 방 남자가 눈치챘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밤중에 신발을 신은 발소리가 들린다고도 말했지만, 길먼은 그가 잘못 들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아침이면 옷가지와 마찬가지로 신발도 언제나 제자리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병적인 고택에서는 온갖 청각적 환각이 생겨날 법했다. 길먼 자신조차 대낮에, 경사진 벽 너머와 비스듬한 천장 위 검은 빈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쥐가 긁는 소리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병적으로 예민해진 그의 귀는 머리 위, 아득한 옛날부터 봉인된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 환청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제로 몽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사이 두 번이나 방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옷가지들은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프랭크 엘우드였다. 엘우드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이 지저분하고 평판 나쁜 하우스에 함께 머물게 된 유일한 동기였다.

사건이 일어난 밤, 엘우드는 새벽녘까지 공부를 하던 중 미분 방정식 문제에 도움을 구하러 길먼의 방을 찾아갔으나 길먼은 자리에 없었다. 노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다소 무례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엘우드는 도움이 절실했고, 집주인인 길먼이 가볍게 흔들어 깨우는 것 정도는 개의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의 시도 모두 길먼은 그곳에 없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길먼은 자신이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대체 어디를 헤매고 다녔던 것인지 의아해했다. 그는 몽유병 증세가 계속된다면 이 문제를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복도 바닥에 밀가루를 뿌려두어 자신의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좁은 창문 밖으로는 발을 디딜 곳이 전혀 없었기에,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문뿐이었다.

4월이 깊어갈 무렵, 열병으로 예민해진 길먼의 귀에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1층에 방을 얻어 사는 조 마주레비치라는 미신적인 직기 수리공이 칭얼거리듯 기도를 올리는 소리였다. 마주레비치는 늙은 케지아 메이슨의 유령과 털이 숭숭 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코를 킁킁거리는 괴물에 대해 길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그는 가끔 유령에게 너무 심하게 시달려서, 성 스타니슬라우스 교회의 이바니츠키 신부가 그 목적으로 건네준 은 십자가가 있어야만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그가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마녀들의 사바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5월 전야는 발푸르기스의 밤이다. 지옥의 가장 검은 악이 지상을 배회하고, 사탄의 노예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의식과 행위를 위해 모여드는 밤 말이다. 미스카토닉 대로와 하이 가, 솔턴스톨 가에 사는 상류층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척했지만, 아컴에는

언제나 이 시기가 되면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끔찍한 사건이 터지거나 아이 한둘이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조는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고국에 있는 그의 할머니가 그 할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이맘때면 기도를 올리며 묵주를 굴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였다.

지난 석 달 동안 케지아와 브라운 젠킨은 조의 방 근처에도, 폴 초인스키의 방 근처에도,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잠잠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달 16일, 길먼은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열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내심 놀랐다. 의사는 날카로운 태도로 그를 심문하듯 문초하더니, 신경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다. 길먼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훨씬 더 참견하기 좋아하는 대학 병원 의사에게 갔더라면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터였다. 예전에 활동을 줄이라고 권했던 노인 월드론이었다면 분명 휴식을 강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정식의 거대한 결실을 눈앞에 둔 지금, 휴식이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분명 인지된 우주와 4차원 사이의 경계선에 다다라 있었다. 그 너머로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길먼은 자신이 느끼는 이 기묘한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의아했다. 곧 닥쳐올 위험을 예감하는 이 불안한 확신은, 그가 날마다 빼곡히 채워나가는 종이 위의

공식들에서 나온 것일까? 밀폐된 다락방 위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은밀하며 환상 같은 발소리는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게다가 이제는 누군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라고,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려는 듯한 기분 말이다. 몽유병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밤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대낮의 명료한 정신 속에서도, 가끔은 주변의 소음 사이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그 희미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소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리듬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굳이 따지자면 입에 담기조차 불경한 사바트의 찬가 중 한두 구절과 비슷할 뿐이었다. 때때로 그는 그 리듬이, 꿈속의 완전히 이질적인 심연에서 들려오는 모호한 비명이나 포효의 특징과 닮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사이 꿈은 끔찍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초기의 희미했던 단계와 달리, 이제 그 사악한 노파는 악마처럼 선명한 형상을 드러냈다. 길먼은 그녀가 슬럼가에서 자신을 겁주었던 바로 그 존재임을 깨달았다. 굽은 등과 긴 코, 쪼글쪼글한 턱은 틀림없는 그녀의 모습이었고, 형태를 알 수 없는 갈색 옷차림 또한 기억 속의 그것과 같았다. 노파의 얼굴에는 흉측한 악의와 환희가 서려 있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그를 회유하고 협박하던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길먼에게 검은 사나이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궁극적인 혼돈의 중심에 있는 아자토스의 옥좌로 그들 모두와 함께 가야 한다고 종용했다. 자신의 독자적인 탐구가 이토록 멀리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자신의 피로 아자토스의 서적에 서명하고 새로운 비밀 이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다.

하지만 길먼이 그녀와 브라운 젠킨, 그리고 다른 이들을 따라 가느다란 피리 소리가 멍청하게 울려 퍼지는 혼돈의 옥좌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네크로노미콘』에서 '아자토스'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었고, 그 이름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근원적 악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노파는 내리막 경사와 안쪽 경사가 맞닿은 모퉁이 근처에서, 마치 허공에서 갑자기 나타나듯 늘 모습을 드러냈다. 노파는 바닥보다는 천장에 더 가까운 어느 지점에서 결정체처럼 형체를 갖추는 듯 보였다. 꿈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노파는 매일 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모습 또한 더욱 또렷해졌다. 브라운 젠킨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놈의 황백색 송곳니는 기괴한 보랏빛 인광 속에서 섬뜩하게 번뜩였다. 놈이 내뱉는 날카롭고 혐오스러운 웃음소리는 갈수록 길먼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길먼은 그 놈이 어떻게 "아자토스"와 "니알라토텝"이라는 단어를 발음했는지 생생히 기억해내곤 했다.

꿈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은 더욱 또렷해졌다. 길먼은 자신을 에워싼 황혼녘의 심연이 4차원의 공간임을 직감했다. 그곳에서 움직임이 그나마 목적이 있어 보이고 덜 무질서해 보이는 유기체들은, 아마도 인간을 포함하여 우리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투영된 모습일 것이다. 그 외의 존재들이 자신들의 차원 혹은 여러 차원 속에서 어떤 모습일지, 그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움직임이 비교적 덜 무의미해 보이는 존재 두 마리가 길먼을 눈여겨보는 듯했다. 하나는 무지갯빛을 띠며 길쭉한 구형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거품 덩어리였고, 다른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색채와 급격히 변하는 표면 각도를 지닌 아주 작은 다면체였다. 길먼이 거대한 프리즘과 미로, 입방체와 평면이 엉킨 군집, 그리고 건물과도 같은 구조물들 사이를 움직일 때마다, 이 존재들은 그를 따라다니거나 앞질러 떠다녔다. 그 와중에도 희미한 비명과 포효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괴한 절정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말이다.

4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밤,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길먼은 거품 덩어리와 작은 다면체가 앞을 떠다니는 황혼의 심연 속을 반쯤 무의식적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거대한 프리즘 군집의 모서리들이 이루는 기묘할 정도로 규칙적인 각도를 발견했다. 다음 순간, 그는 심연에서 벗어나 강렬하고 은은한 초록빛이 감도는 바위 언덕 위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서 있었다. 맨발에 잠옷 차림인 그는 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발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다. 소용돌이치는 증기가 눈앞의 경사진 지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다. 길먼은 저 안개 속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움츠렸다.

그때 두 형체가 그를 향해 고통스럽게 기어오는 것이 보였다. 노파와 털이 숭숭 난 작은 괴물이었다. 노파는 무릎을 꿇고 몸을 일으키더니, 기이한 방식으로 팔을 교차했다. 동시에 브라운 젠킨은 끔찍할 정도로 인간을 닮은 앞발을 분명한 어려움을 겪으며 들어 올리더니, 어느 한 방향을 가리켰다. 길먼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충동에 휩싸여

몸을 끌었다. 노파의 팔이 이루는 각도와 작은 괴물의 발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채 세 걸음을 채 옮기기도 전에, 그는 다시 황혼의 심연 속으로 떨어졌다.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주변에서 들끓었고,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한 어지러움 속으로 추락했다. 마침내 그는 기괴한 각도로 뒤틀린 그 낡고 섬뜩한 집, 다락방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그날 아침,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수업을 빠진 채 멍하니 머물 뿐이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잡아끌었다. 그는 바닥의 어느 빈 공간을 넋을 놓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점 없는 그의 시선은 조금씩 위치를 옮겨갔다. 정오쯤 되어서야 그는 허공을 응시하던 충동을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다. 오후 2시경, 그는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헤치며 걷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동남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지만,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 알 수 없는 인력은 더욱 강렬하게 그를 잡아끌었다.

결국 신경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았다. 어쩌면 자신의 몽유병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전에 적어도 스스로 이 병적인 마력에서 벗어나려 노력이라도 해봐야 했다. 그는 분명 이 끌어당기는 힘을 뿌리치고 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품고 그 힘에 맞서며, 개리슨 가를 따라 북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미스카토닉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철제 난간을 움켜쥔 채 강 상

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섬이 있었다. 오후의 햇살 아래, 고대의 선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채 침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황량한 섬 위에 살아 움직이는 형체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다. 다시금 눈을 가다듬어 살펴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의 꿈속에 불길한 모습으로 나타나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그 기괴한 노파였다. 노파 근처의 긴 풀들도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지면을 따라 기어가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노파가 그를 향해 몸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는 다급히 다리 위를 벗어나 마을의 미로 같은 해안가 골목 안으로 몸을 숨기며 달아났다. 섬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갈색 옷을 입은 그 굽은 노파의 냉소적인 시선으로부터 거대하고도 무적에 가까운 악의가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다.

남동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여전했다. 길먼은 엄청난 의지를 쥐어짜 내어 겨우 그 낡은 집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목적도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서히 서쪽을 향해 옮겨갔다. 저녁 여섯 시쯤 되었을까, 예민해진 귀에 두 층 아래에서 조 마주레비치가 웅얼거리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먼은 절박한 심정으로 모자를 움켜쥐고 노을빛으로 물든 거리로 나섰다. 이제는 정남쪽으로 작용하는 인력에 몸을 맡긴 채, 그 힘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시간 뒤,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그는 행맨스 브룩 너머의 탁 트인 들판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봄날의 별들이 가물거리며 빛나고 있었다. 걷고 싶다는 충동은 점차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허공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갈망으로 변해갔다. 그

리고 문득, 그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하늘에 있었다. 별들 사이의 명확한 어느 한 지점이 길먼을 붙들고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 지점은 히드라와 아르고호자리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했다. 새벽녘에 깨어난 순간부터 그는 줄곧 그곳을 향해 이끌려 왔음을 직감했다. 아침에는 발밑에 있던 것이, 이제는 대략 남쪽에서 서쪽을 향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다. 이 기이한 현상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가? 이 상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길먼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 불길하고 낡은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마주레비치는 문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미신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서도, 불안함과 망설임이 교차하는 기색이었다. 이야기는 마녀의 불빛에 관한 것이었다. 조는 전날 밤 매사추세츠의 애국자의 날을 기념하며 밖에서 축제를 즐기다 자정이 지나서야 귀가했다. 밖에서 집을 올려다보던 조는 처음에는 길먼의 창문이 어둡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창 안쪽에서 희미한 보랏빛 광채가 일렁이는 것을 목격했다.

조는 그 빛에 대해 길먼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아컴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빛이 브라운 젠킨과 늙은 마녀의 유령 곁에서 일렁이는 케지아 메이슨의 마녀 불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는 이전에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반드시 말해야만 했다. 그 빛

이 보인다는 것은 케지아와 그 이빨 긴 사역마가 젊은 신사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었으므로.

때때로 조와 폴 초인스키, 그리고 집주인 돔브로프스키는 젊은 신사의 방 위, 굳게 닫힌 다락방 틈새로 그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일에 대해 입을 다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먼이 다른 방으로 옮기고 이 바니츠키 신부 같은 선량한 사제에게서 십자가를 받아 오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었다.

남자가 횡설수설 말을 이어갈수록, 길먼은 이름 모를 공포가 목을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술에 취해 있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다락방 창문에서 보랏빛 빛이 새어 나왔다는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미지의 심연으로 추락하기 전, 그를 찾아오는 밝고 선명한 꿈속에서 늘 그 노파와 작은 털뭉치 곁을 맴돌던 빛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은은한 광채였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다른 사람이 그 꿈속의 빛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체 저 남자는 어디서 그런 기괴한 생각을 해낸 것일까? 혹시 자신도 잠결에 집 안을 돌아다니며 잠꼬대라도 했던 것일까? 조의 말에 따르면 그럴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길먼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만 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꺼려졌지만, 어쩌면 프랭크 엘우드라면 무언가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열병, 광기 어린 꿈, 몽유병, 환청, 그리고 하늘의 어느 한 지점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까지. 이제는 자신이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공부를 멈춰야 했다.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고, 스스로를 다스려야만 했다. 2층으로 올라가던 길에 엘우드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으나, 그 청년은 외출한 상태였다. 길먼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다락방까지 올라가 어둠 속에 주저앉았다. 시선은 여전히 남쪽을 향해 끌리고 있었지만, 그는 동시에 닫힌 위층 다락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어떤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낮은 경사 천장의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불길한 보랏빛 광채가 스며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는 환상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날 밤 길먼이 잠들었을 때, 보랏빛 광채는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그를 덮쳐왔다. 늙은 마녀와 작은 털 뭉치 괴물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인간의 것이 아닌 비명과 악마 같은 몸짓으로 그를 조롱했다. 무지갯빛 거품 덩어리와 만화경처럼 변하는 작은 다면체가 그를 위협하며 괴롭혔지만, 길먼은 차라리 희미하게 포효하는 황혼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 미끄러워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평면들이 그의 위아래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는 결국 정신이 아득해지는 섬광과 함께 끝이 났다. 노란색과 진홍색, 그리고 남색이 미친 듯이 뒤섞여 분간할 수 없게 타오르는, 정체 모를 이질적인 빛이 폭발하듯 번져 나갔다.

그는 기괴한 난간이 둘러쳐진 높은 테라스 위에 반쯤 누워 있었다. 발치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정글처럼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믿

기지 않을 만큼 생경한 봉우리와 수평을 유지한 채 떠 있는 평면들, 돔과 첨탑, 그리고 뾰족한 꼭대기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수평 원반들이 보였다. 그보다 훨씬 더 기괴한 형상들이 셀 수 없이 널려 있었는데, 어떤 것은 돌로, 어떤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다채로운 색채를 띤 하늘에서 쏟아지는, 살을 태울 듯 강렬하고 뒤섞인 빛줄기에 그 형상들은 화려하게 번뜩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자, 무한히 멀리 굽어지는 낮은 산맥의 지평선 위로 거대한 불꽃 원반 세 개가 떠 있었다. 세 원반은 저마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으며, 높이 또한 제각각이었다. 등 뒤로는 더 높은 테라스들이 층층이 쌓여 시야가 닿는 곳까지 끝없이 솟아 있었다. 발아래 펼쳐진 도시는 눈이 닿는 한계까지 뻗어 나갔다. 그는 저 밑바닥에서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운 바닥은 결이 살아있는 매끄러운 석재였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돌이었다. 타일은 기괴한 각도로 잘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비대칭이라기보다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대칭을 따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난간은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으며, 섬세하고도 환상적인 모습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난간을 따라서는 기괴한 형상을 한 작은 조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는데, 그 솜씨가 매우 정교했다.

난간 전체와 마찬가지로, 이 조각들 역시 빛이 어지럽게 뒤섞여 색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그 정체는 도저히 추측할 수 없었다. 조각들은 중심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

에서 바퀴살처럼 가느다란 수평 팔들이 뻗어 나온, 굴곡진 통 모양의 물체를 형상화하고 있었다. 또한 통의 머리와 바닥 부분에는 수직으로 돌출된 매듭이나 구형의 돌기들이 달려 있었다. 이 돌기 하나하나에는 불가사리의 팔처럼 다섯 개의 길고 납작한 삼각형 모양의 팔이 둘러싸여 있었다. 이 팔들은 거의 수평에 가까웠으나, 중심이 되는 통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가장 아래쪽 돌기의 밑부분은 난간과 너무나도 미세한 지점에서 맞닿아 있었다. 그 접점이 워낙 약한 탓인지, 몇몇 조각은 부러져 나가 사라진 상태였다. 조각들의 높이는 약 4.5인치였고, 뾰족한 팔들을 포함한 최대 지름은 약 2.5인치 정도였다.

길먼이 일어서자 맨발에 닿는 타일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는 우선 난간 쪽으로 걸어가, 이천 피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사이클롭스풍의 도시를 어지러운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귀를 기울이니 아래쪽 좁은 거리들로부터 넓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희미한 악기 소리들이 리듬감 있게 뒤섞여 올라오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 사는 존재들이 누구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한참을 내려다보던 그는 현기증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매끄러운 난간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오른손이 돌출된 조각 하나를 짚자, 그 감촉 덕분에 약간의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금속 공예품의 정교함은 인간의 힘을 견디기엔 너무나 섬세했다. 그가 움켜쥐는 순간 뾰족한 조각이 툭 하고 부러져 나갔다. 여전히 멍한 상태였던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매끄러운 난간의 빈 곳을 움켜쥐며, 부러진 조각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나치게 예민해진 그의 귀에 등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평평한 테라스를 가로질러 뒤를 돌아보았다. 다섯 형체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부드러웠으나, 딱히 숨어들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중 둘은 불길한 노파와 송곳니가 돋은 털복숭이 작은 짐승이었다. 나머지 세 형체는 그를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만들 정도로 기괴했다. 키가 8피트에 달하는 그 생명체들은 난간에 새겨진 가시 돋친 조각상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아래쪽에 달린 불가사리 모양의 팔들을 거미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길먼은 침대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과 손발은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바닥으로 뛰어내려 정신없이 몸을 씻고 옷을 입었다. 마치 한시라도 빨리 집을 빠져나가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급한 기색이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알 수 없었으나, 또다시 수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히드라와 아르고자리 사이의 하늘을 향하던 기묘한 끌림은 잦아들었지만, 그보다 훨씬 강력한 다른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북쪽으로, 끝도 없이 북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미스카토닉강의 황량한 섬이 내려다보이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두려웠던 그는 피보디 애비뉴 다리를 택해 길을 나섰다. 그는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눈과 귀가 텅 빈 푸른 하늘의 아득히 높은 어느 지점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쯤 지나서야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사방에는 황량하고

텅 빈 소금 습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눈앞의 좁은 길은 인스머스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컴 사람들이 묘하게도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반쯤 버려진 그 오래된 마을 말이다. 북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여전했지만, 그는 이전의 인력에 저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맞서 싸웠다. 결국 그는 두 힘 사이에서 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터벅터벅 마을로 돌아와 소다수 판매대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공공 도서관으로 몸을 이끌었다. 그리고 가벼운 잡지들을 목적 없이 훑어보았다.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얼굴이 왜 이리 이상하게 탔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를 걷고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후 세 시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는 북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졌거나, 혹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후에는 저렴한 영화관에서 시간을 때웠다.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내용 없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며 시간을 죽였다.

밤 9시경, 그는 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와 그 오래된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조 마주레비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웅얼거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길먼은 엘우드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 멈추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충격은 희미한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찾아왔다. 테이블 위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의심할 여지조차 남지 않았다. 그것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스스로 서 있을 수는 없는 형태였다. 바로 그 괴기스러운 꿈속

에서, 그가 환상적인 난간으로부터 꺾어냈던 그 이국적이고 뾰족한 형체였다.

세부적인 묘사 하나 빠진 것이 없었다. 굴곡진 통 모양의 중심부, 가늘게 뻗어 나온 팔들, 양 끝의 돌기, 그리고 그 돌기에서 바깥쪽으로 완만하게 굽어지며 펼쳐진 납작한 불가사리 모양의 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전등 불빛 아래 비친 그것의 색깔은 초록빛 맥이 섞인 무지갯빛 회색처럼 보였다. 공포와 당혹감 속에서도 길먼은 한 가지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돌기 중 하나가 들쭉날쭉하게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꿈속의 난간에 붙어 있던 원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직 멍한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던 덕분에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이 감각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길먼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 뾰족한 물체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돔브로프스키 집 주인의 방으로 향했다. 곰팡내 나는 복도에는 미신을 믿는 직기 수리공의 흐느끼는 기도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으나, 이제 길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집주인은 방 안에 있었고,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내가 정오에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중 하나에서 이상한 양철 물건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돔브로프스키가 아내를 불렀고, 그녀가 뒤뚱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그 물건이 맞았다. 아내는 그 물건을 젊은 신사의 침대, 즉 벽 쪽 옆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내의 눈에도 그것은 매우 기이해 보였지만, 젊은 신사의 방에는 책과 골동품, 그림, 그리고 종이에 적힌 기호들처럼 이상한 것들이 워낙 많으니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 역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길먼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거나, 혹은 몽유병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극단적으로 치달아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 확신했다. 대체 이 기괴한 물건을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아컴에 있는 그 어떤 박물관에서도 이런 것을 본 기억은 없었다.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터였다. 잠결에 이 물건을 낚아챌 때 보았던 형상이, 난간이 있는 테라스라는 기묘한 꿈의 장면을 만들어냈음이 분명했다. 그는 다음 날 아주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본 뒤,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몽유병 상태를 파악하려 애썼다. 다락방 복도를 가로질러 위층으로 올라가며, 그는 집주인에게 용도를 솔직하게 밝히고 빌려온 밀가루를 여기저기 뿌려 두었다. 올라가는 길에 엘우드의 방문 앞에도 잠시 멈춰 섰으나, 방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그 뾰족한 물건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옷을 벗을 기력조차 없이,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탈진한 채 그대로 누워 버렸다. 슬레이트 천장 너머 닫힌 다락방 쪽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긁고 발을 내딛는 소리가 들린 듯했으나, 그는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정신이 혼미했다. 북쪽에서 느껴지는 그 기묘한 이끌림이 다시금 강해지고 있었

다. 다만 이번에는 그 기운이 이전보다 더 낮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했다.

꿈속의 눈부신 보랏빛 광채 사이로 그 노파와 송곳니 달린 털뭉치가 다시 나타났다.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길먼에게 실제로 다가왔고, 그는 노파의 메마른 발톱이 자신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대 밖으로 끌려 나가 텅 빈 허공으로 던져졌다. 잠시 동안 규칙적인 포효 소리가 들려왔고, 모호한 심연의 형체 없는 황혼이 주변에서 들끓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은 매우 짧았다. 곧이어 그는 창문 하나 없는 투박한 작은 공간에 놓여 있었다. 머리 바로 위로는 거친 들보와 판자들이 뾰족하게 솟아 있었고, 발밑의 바닥은 기묘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 바닥 위에는 온갖 시대의 고서들이 가득 담긴 낮은 상자들이 수평을 맞추어 놓여 있었는데, 책들은 저마다 낡고 부서져 가는 상태였다. 중앙에는 탁자와 벤치가 놓여 있었으며, 둘 다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듯 보였다. 상자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모양의 작은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다. 타오르는 보랏빛 빛 속에서 길먼은 그를 그토록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가시 돋친 형상과 닮은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왼쪽으로는 바닥이 갑자기 깎아지른 듯 끊겨 있었고, 그 너머로 검은 삼각형의 구렁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 동안 마른 달그락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노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수염 난 사람의 얼굴을 한 그 혐오스러운 작은 털뭉치가 구렁 속에서 기어 올라왔다.

사악한 미소를 짓는 노파는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다. 탁자 너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체가 서 있었다. 죽은 듯한 검은 빛을 띤 키 크고 마른 사내였다. 하지만 그에게선 흑인 특유의 이목구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카락이나 수염도 없이 매끈한 얼굴이었으며, 몸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검고 무거운 천으로 된 옷 한 벌만을 걸치고 있었다. 탁자와 벤치에 가려 발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달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신발을 신고 있음이 분명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작고 반듯한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탁자 위에 펼쳐진 거대한 책을 가리킬 뿐이었다. 그사이 노파는 길먼의 오른손에 거대한 회색 깃펜을 쥐여주었다. 모든 것을 짓누르는 것은 미칠 듯한 공포의 장막이었다. 그 공포는 털이 숭숭 난 괴물이 꿈을 꾸는 자의 옷을 타고 어깨까지 기어올라갔다가, 다시 왼쪽 팔을 타고 내려가 소맷단 바로 아래 손목을 날카롭게 깨물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는 순간, 길먼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22일 아침, 월터 길먼은 왼쪽 손목의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소매 끝을 보니 말라붙은 핏자국이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기억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나, 정체 모를 공간에서 검은 사나이를 마주했던 장면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잠든 사이에 쥐들이 그를 물었음이 틀림없었다. 그 통증이 그 끔찍한 꿈의 절정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 바닥에 뿌려진 밀가루가 보였다. 다락방 끝방에 사는 덩치 큰 사내의 거대한 발자국을 제외하면, 밀가루는 흐트러진 곳 없이 그대로였다. 이번에는 몽유병 증세가 나타난 것이 아

니었다. 하지만 저 쥐들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했다. 집주인에게 이 문제를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기울어진 벽 밑바닥의 구멍을 막으려 시도했다. 적당한 크기로 보이는 촛대를 구멍에 끼워 넣었다.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려 퍼졌다. 마치 꿈속에서 들었던 어떤 소름 끼치는 소음의 잔향이 남아 있는 듯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길먼은 보랏빛으로 빛나던 공간 이후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 그 장면 자체는 머리 위로 봉인된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그 다락방은 이미 그의 상상력을 격렬하게 뒤흔들기 시작했으나, 그 이후의 기억들은 희미하고 흐릿했다.

어렴풋한 황혼빛 심연이 떠올랐고, 그 너머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검은 심연이 존재했다. 그곳은 그 어떤 구체적인 형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심연이었다. 거품 덩어리들과 그를 늘 따라다니던 작은 다면체가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그들도 길먼 자신과 마찬가지로, 궁극의 암흑이 지배하는 저 먼 허공 속에서는 한 줄기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 앞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가끔 형체를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응축되기도 하는, 더 거대한 안개 줄기 같은 것이었다. 길먼은 그들이 직선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천상의 소용돌이를 따라 이질적인 곡선과 나선을 그리며 움직였다고 생각했다. 그 소용돌이

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주의 물리학이나 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하게 요동치는 그림자의 흔적이 나타났다. 괴물처럼 거대하고 반쯤만 소리로 느껴지는 박동이 일었으며, 보이지 않는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가늘고 단조로운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길먼은 그 마지막 잔상이 《네크로노미콘》에서 읽었던 내용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혼돈의 중심에 있는 검은 왕좌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지각 없는 존재 아자토스에 관한 기록 말이다.

피를 씻어내자 손목의 상처는 아주 미미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길먼은 두 개의 아주 작은 구멍이 왜 그 위치에 있는지 의아해했다. 문득 그는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보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부와 소맷동에 묻은 혈흔의 양을 생각하면 매우 기이한 일이었다. 혹시 방 안에서 몽유병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자세로 멈춰 서 있을 때 쥐에게 물린 것일까? 그는 갈색의 핏방울이나 얼룩이 있는지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방 안과 문밖에 밀가루를 뿌려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자신이 몽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멈추는 것이었으니까. 프랭크 엘우드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오늘 아침, 우주로부터 느껴지던 기묘한 끌림은 다소 줄어든 듯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감각이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는, 막연

하면서도 끈질긴 충동이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시 돋친 기묘한 형상을 집어 들자, 북쪽을 향하던 예전의 끌림이 아주 약간 강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느낌조차 새로이 찾아온, 더욱 당혹스러운 충동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길먼은 그 뾰족한 형상을 들고 엘우드의 방으로 내려갔다. 1층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직기 수리공의 징징거리는 불평을 견뎌내려 마음을 다잡으면서 말이다. 다행히 엘우드는 방 안에 있었고,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하고 대학으로 떠나기 전까지 잠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있었다. 길먼은 최근에 꾼 꿈과 그로 인한 공포를 서둘러 털어놓았다. 주인은 매우 공감하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손님의 초췌하고 수척해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이들도 언급했던 그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화상 자국을 눈여겨보았다.

하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길먼이 몽유병 상태로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본 적도 없었고, 그 기이한 형체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어느 저녁, 길먼의 바로 아랫방에 머물던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마주레비치와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발푸르기스의 밤이 얼마나 두려운지 서로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운명에 처한 가련한 젊은 신사에 대해 안타까운 말들을 주고받았다.

길먼의 방 바로 아래층에 사는 데로셰라는 사내는 밤마다 들려오는 신발 신은 발소리와 맨발의 발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어느 날 밤, 겁에 질린 채 길먼의 방 열쇠구멍을 훔쳐보려 했을 때 보았던 보랏빛 광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문틈 사이로 그 빛을 언뜻 본 뒤로는 감히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마주레비치에게 털어놓았다. 낮은 속삭임도 들려왔다고 했다. 그는 그 소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속삭임으로 낮추어 말했다.

엘우드는 미신에 사로잡힌 이 괴상한 인간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수군거리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길먼이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데다 잠결에 비틀거리며 걷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마침 공포의 대상인 5월의 전야가 다가오고 있었다. 길먼이 잠꼬대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만큼 명백했다. 보랏빛 꿈의 광채라는 그 기만적인 소문이 퍼진 것도 분명 데로셰가 열쇠구멍으로 엿듣고 퍼뜨린 말 때문일 터였다. 이 어리석은 이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믿어버리곤 했다.

당장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라면, 길먼은 엘우드의 방으로 옮겨와 혼자 자는 일을 피하는 편이 나았다. 엘우드는 잠결에 길먼이 말을 하거나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그를 깨워줄 생각이었다. 또한 머지않아 길먼은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야 했다. 그동안 그들은 가시 돋친 형상의 물체를 여러 박물관과 특정 교수들에게 가져가 정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그 물건

은 공공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덧붙일 작정이었다. 아울러 돔브로프스키는 벽 사이에서 나타나는 쥐들을 퇴치하기 위해 독약을 뿌리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엘우드의 동행 덕분에 길먼은 그날 수업에 참석할 수 있었다. 기이한 충동이 여전히 그를 잡아끌었지만, 그는 꽤 성공적으로 그 충동들을 억누르고 주의를 돌렸다. 공강 시간 동안 그는 몇몇 교수들에게 그 기묘한 형상을 보여주었다. 교수들은 모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그 형상의 정체나 기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날 밤, 길먼은 엘우드가 집주인에게 부탁해 2층 방으로 가져다 놓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불안한 꿈을 꾸지 않고 온전히 깊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열병 같은 상태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베틀 수리공이 내는 칭얼거리는 소리는 그의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댔다.

그 후 며칠 동안 길먼은 기괴한 현상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자유로웠다. 엘우드의 말에 따르면, 길먼은 잠결에 말을 하거나 몸을 일으키는 기색조차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사이 집주인은 집안 곳곳에 쥐약을 뿌려 두었다.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상상력이 극도로 자극된 미신적인 외국인들의 수다뿐이었다. 마주레비치는 끊임없이 길먼에게 십자가를 구해오라고 종용하더니, 결국 이바니츠키 신부님이 축복했다며 십자가 하나를 억지로 쥐여주었다. 데로셰 역시 할 말이 있었다. 그는 길먼이 방을 비웠던 첫째 날과 둘째 날 밤, 데로셰의 바로 위층에 있는 빈 방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폴 초인스키는 밤마다 복도와 계단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살며시 돌려보려 했다고 말했다. 돔브로프스키 부인은 할로윈 이후 처음으로 브라운 젠킨을 보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런 순진한 보고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였기에, 길먼은 집주인의 화장대 손잡이에 싸구려 금속 십자가를 대충 걸어두었다.

길먼과 엘우드는 그 기괴하고 가시 돋친 형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사흘 동안 지역 박물관들을 샅샅이 뒤졌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그 물체가 지닌 철저한 이질성이 과학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방사형으로 뻗은 작은 팔 중 하나가 부러져 나갔고, 이 조각을 대상으로 화학 분석이 진행되었다. 엘러리 교수는 그 기묘한 합금에서 백금과 철, 그리고 텔루륨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들과 섞여 있는 또 다른 원소들이 최소 세 종류는 더 있었다. 원자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이 원소들은 화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분류할 수 없었다. 이들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원소와도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기율표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들어갈 자리조차 차지하지 않았다. 그 형체는 현재 미스카토닉 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그 수수께끼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4월 27일 아침, 길먼이 머물던 방에서 새로운 쥐 구멍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돔브로프스키는 낮 동안 그 구멍을 양철로 막아버렸다. 독을 써 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엘우드는 늦게까지 외출 중이었고, 길먼은 그를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자 방에 남겨져 잠드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특히나 해 질 녘 황혼 속에서, 자신의 꿈속에 그토록 끔찍하게 각인된 그 혐오스러운 노파를 언뜻 본 것만 같았기에 더욱 그랬다. 길먼은 그 노파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저분한 안뜰 입구의 쓰레기더미에서 양철통을 달그락거리며 곁에 있던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 노파는 길먼을 알아챈 듯 사악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물론, 그것은 그저 길먼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두 청년은 몹시 피곤함을 느꼈다. 밤이 오면 마치 통나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정도였다. 저녁 무렵, 그들은 나른한 기운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먼을 그토록 완전히, 어쩌면 해롭게 몰아넣었던 수학 연구에 대해 논했고, 그 연구가 고대 마법 및 민속 신앙과 어둡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추측했다.

그들은 케지아 메이슨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엘우드는 길먼이 그녀가 기이하고도 중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런 마녀들이 속한 은밀한 이교도 집단은 대개 잊힌 태고의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놀라운 비밀들을 수호하며 계승해 왔다. 따라서 케지아 메이슨이 차원의 문을 통과하는 기술을 실제로 터득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녀의 사념을 막아내는 데 물질적인 장벽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한다. 밤하늘을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들의 이면에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는가?

현대의 학생이 오로지 수학 연구만으로 이와 유사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길먼은 성공의 대가가 위험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접해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차원에 어떤 조건들이 펼쳐져 있을지,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그 가능성만큼은 경이로울 정도로 방대했다. 어떤 공간의 구역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런 구역에 들어가 머물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과 나이를 영원히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차원이나 그와 유사한 차원을 잠시 방문할 때 겪는 미세한 변화를 제외하면, 생물학적 대사 작용이나 노화의 고통을 전혀 겪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갔다가 지구 역사의 아주 먼 미래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젊은 모습 그대로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래된 전설은 흐릿하고 모호하며, 역사 속에서 금지된 경계를 넘으려 했던 모든 시도는 외부에서 온 존재나 사자들과 맺은 기괴하고 끔찍한 결탁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태고적부터 숨겨진 공포스러운 권능을 대리하거나 전달하는 존재가 등장해 왔다. 마녀 숭배 집단에서는 '검은 사나이'라 불렸고, 《네크로노미콘》에서는 '니알라토텝'이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설이 마녀의 사역마로 묘사하는, 반쯤 동물 같기도 하고 기이한 혼종 같기도 한 하급 사자나 중개자들의 존재 역시 난해한 문제로 남아 있다. 길먼과 엘우드는 더는 논쟁할 기력도 없이 졸음이 쏟아져 방으로 물러났다. 그때 조 마주레비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절박하게 기도를 올렸다. 그 처절하고 광기 어린 기도 소리에 두 사람은 몸서리쳤다.

그날 밤, 길먼은 다시 그 보랏빛 광채를 보았다. 꿈속에서 그는 벽 너머로 무언가 긁고 갉아대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서투른 손길로 문고리를 더듬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카펫이 깔린 바닥을 지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노파와 작고 털이 숭숭 난 괴물을 목격했다. 노파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닌 환희로 빛나고 있었고, 누런 이빨을 드러낸 그 작은 괴물은 비웃듯 낄낄거리며 방 건너편 소파에서 깊이 잠든 엘우드의 형체를 가리켰다. 공포로 인한 마비 증세 때문에 비명을 지르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전에도 그랬듯, 그 끔찍한 노파는 길먼의 어깨를 움켜쥐고는 그를 침대 밖 허공으로 거칠게 잡아끌었다. 비명 지르는 심연의 무한함이 다시 한번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그는 자신이 어둡고 진흙탕이 가득한, 정체 모를 골목에 서 있다고 느꼈다. 사방에는 악취를 풍기는 고대 가옥의 썩어가는 벽들이 높게 솟아 있었다.

앞쪽에는 지난 꿈속의 뾰족한 공간에서 보았던, 검은 옷을 입은 검은 사나이가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노파가 오만한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짓하고 있었다. 브라운 젠킨은 검은 사나이의 발목 주위를 애정 어린 장난을 치듯 비벼대고 있었는데, 깊은 진흙 때

문에 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검은 사나이는 오른편에 있는 어두운 입구를 말없이 가리켰다. 그러자 히죽거리는 노파가 길먼의 잠옷 소매를 잡아끌며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불길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는 악취 나는 계단이 나타났다. 노파가 지나갈 때마다 그 계단에서는 희미한 보랏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마침내 계단참을 지나 하나의 문이 나타났다. 노파는 문고리를 더듬거려 문을 열더니, 길먼에게 기다리라는 몸짓을 하고는 검은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청년의 예민한 귀에 끔찍하게 짓눌린 비명이 들려왔다. 곧이어 노파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작은 형체를 들고 나오더니, 마치 들고 가라는 명령이라도 하듯 꿈꾸는 자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그 형체의 모습과 얼굴에 서린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마법은 깨져 버렸다. 여전히 정신이 혼미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악취 나는 계단을 무모하게 뛰어 내려가 바깥의 진흙탕 속으로 몸을 던졌다. 기다리고 있던 검은 사나이에게 붙잡혀 목이 졸리고 나서야 그는 겨우 멈춰 섰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찰나, 그는 이빨이 돋아난 쥐 같은 괴물이 내뱉는 가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었다.

29일 아침, 길먼은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경사진 벽과 천장이 있는 예전의 다락방으로 돌아와 있었고, 흐트러진 침대 위에 몸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길먼은 몸을 일으켜 앉으려 애쓰다 발과 잠옷 바지가 굳은 진흙으로 갈색이 된 것을 보고 점점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당장은 기억이 형편없이 흐릿했지만, 적어도 자신이 몽유병 상태였음은 분명했다. 엘우드는 너무 깊이 잠든 탓에 길먼의 움직임을 듣지도, 막지도 못했을 것이다. 바닥에는 어지럽게 진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흔적은 문 앞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길먼이 발자국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것들은 더욱 기이하게 보였다. 자신의 것이 분명한 발자국 외에도, 커다란 의자나 탁자 다리가 남긴 것 같은 작고 거의 둥근 자국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국들의 대부분은 마치 반으로 갈라진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갓 파헤쳐진 구멍에서 시작되어 다시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기묘한 쥐 발자국들도 보였다.

길먼은 비틀거리며 문가로 다가갔다. 문밖에는 진흙 발자국이 전혀 없었다. 극심한 당혹감과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가 그를 덮쳤다. 끔찍한 꿈의 내용이 떠오를수록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설상가상으로 두 층 아래에서 조 마주레비치가 슬프게 읊조리는 소리까지 들려오자, 길먼은 절망감에 빠졌다.

엘우드의 방으로 내려간 길먼은 아직 잠들어 있던 집주인을 깨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우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길먼이 어디에 있었는지, 복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다락방에서 어떻게 가구 모양을 닮은 진흙 발자국들이 길먼의 발자국과 뒤섞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측도 불가능했다. 게다가 길먼의 목에는 마치 스스로 목을 조르려 했던 것처럼 검고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 자국을 만져보았으나, 손 모양이 자국과 거의 맞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데로세가 들러 말하기를, 새벽녘 어둠 속에서 머리 위로 무시무시한 덜컹거림이 들렸다고 했다. 자정 이후에는 계단에 아무도 없었다. 다만 자정 직전에 다락방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불쾌한 발소리도 들렸을 뿐이었다. 데로셰는 지금이 아컴에서 아주 불길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니 젊은 신사가 조 마주레비치가 준 십자가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낮 시간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새벽이 밝은 뒤에도 집 안에서는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특히 가늘고 어린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급히 끊기는 소리가 있었다.

그날 아침, 길먼은 기계적으로 수업에 출석했지만 도저히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끔찍한 불안감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치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어떤 일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정오가 되어 그는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디저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서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디저트를 먹지 못했다. 신문 첫 페이지에 실린 기사 한 구절이 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맥없이 풀린 몸으로 겨우 계산을 마친 뒤, 비틀거리며 엘우드의 방으로 돌아갔다.

전날 밤, 오른스 갱웨이(Orne's Gangway)에서 기이한 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스타샤 볼레이코라는 이름의 둔한 세탁 노동자에게는

두 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두려움의 이유로 내세운 말들이 워낙 기괴해서,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3월 초부터 이 근처에서 브라운 젠킨이 이따금씩 나타났다고 한다. 그녀는 그 괴물의 일그러진 표정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보고, 어린 라디슬라스가 발푸르기스의 밤에 열리는 끔찍한 사바트의 제물로 바쳐질 운명임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웃인 메리 차넥에게 방에서 잠을 자며 아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메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경찰에게 말해봤자 소용도 없었다. 경찰은 그런 괴담 따위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아이들은 매년 이런 식으로 사라져 왔다. 게다가 친구인 피트 스토와키는 아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며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길먼을 식은땀에 젖게 만든 것은 자정 직후, 골목 입구를 지나가던 한 쌍의 유흥객이 남긴 보고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괴한 옷차림을 한 세 사람이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맹세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무리는 커다란 로브를 걸친 흑인 한 명과 누더기를 걸친 작은 노파, 그리고 잠옷 차림의 젊은 백인 남성이었다. 노파는 청년을 질질 끌고 있었으며, 흑인의 발치에서는 길들여진 쥐 한 마리가 갈색 진흙 위를 비비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길먼은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사이 신문을 읽고 그로부터 끔찍한 추측을 떠올린 엘우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길먼은 바로 그런 상태였다. 이번만큼은 두 사람 모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끔찍하고도 중대한 무언가가 자신들을 에워싸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악몽 속의 환영과 객관적인 현실 세계 사이에서, 괴기스럽고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가 형체를 갖추며 굳어지고 있었다. 더 참혹한 사태를 막으려면 오직 경악스러울 정도의 경계심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길먼은 조만간 전문가를 찾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모든 신문 기사가 이 납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지금은 더더욱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 모호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였다. 잠시 동안 길먼과 엘우드는 가장 터무니없는 가설들을 속삭이며 주고받았다. 길먼이 차원과 공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일까? 그가 정말로 우리 세계의 영역을 벗어나, 누구도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지점까지 미끄러져 들어갔던 것일까? 악마적인 이질감이 휘몰아치던 그 밤들에, 그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포효하는 황혼의 심연, 초록빛 언덕, 타오를 듯 뜨거운 테라스, 별들이 끌어당기는 힘, 궁극의 검은 소용돌이, 검은 사나이, 진흙투성이 골목과 계단, 늙은 마녀와 송곳니 달린 털 뭉치 괴물, 거품 덩어리들과 작은 다면체, 기이한 화상, 손목의 상처, 설명할 수 없는 형상, 진흙 묻은 발자국, 목에 남은 흔적, 그리고 미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떠들던 괴담

과 공포까지.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이 사건에 정상적인 사고의 법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두 사람 중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두 사람 모두 수업을 빼먹은 채 꾸벅꾸벅 졸며 시간을 보냈다. 때는 4월 30일이었다. 해가 저물면 외국인들과 미신을 믿는 노인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지옥 같은 사바트의 시간이 찾아올 터였다. 6시 정각에 집으로 돌아온 마주레비치는 공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전했다. 메도우 언덕 너머, 식물이 기묘할 정도로 자라지 않는 곳에 오래된 흰 돌이 서 있는 어두운 협곡에서 발푸르기스의 축제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몇몇은 경찰에 신고하며 실종된 볼레이코 아이를 그곳에서 찾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움직일 리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조는 가련한 젊은 신사에게 니켈 체인이 달린 십자가 목걸이를 꼭 걸라고 재촉했다. 길먼은 친구의 성의를 봐주기 위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셔츠 안으로 밀어 넣었다.

깊은 밤, 두 청년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직기 수리공의 기도 소리가 그들을 나른하게 달래주었다. 길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초자연적으로 예민해진 그의 청각은 고색창연한 저택 안의 소음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미세하고도 두려운 속삭임을 찾아내려는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네크로노미콘》과 《검은 서(Black Book)》에 기록된 불길한 내용들이 기억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다. 길먼은 자신도 모르게 기괴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 리듬은 사바트의 가장 검은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며, 우리가 이해하는 시공간 너머에서 기원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깨달았다. 저 멀리 검은 계곡에서 들려오는, 의식에 참여한 자들의 지옥 같은 주문 소리였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는 어떻게 이토록 잘 아는 것일까. 검은 수탉과 검은 염소가 지나간 뒤, 나하브와 그녀의 추종자가 넘칠 듯한 사발을 들고 나타날 시간은 또 어떻게 아는 것인가. 엘우드가 잠든 것을 본 그는 그를 불러 깨우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목을 꽉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결국, 그가 검은 사나이의 서약서에 서명이라도 한 것인가?

비명을 지르는 황혼의 심연이 그의 눈앞에서 번쩍였다. 그는 형체 없는 무지갯빛 거품 덩어리들의 손아귀에 붙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다. 눈앞에서는 작고 만화경 같은 다면체가 질주했다. 소용돌이치는 허공을 가로지르며, 막연한 음조의 패턴은 점점 고조되고 빨라졌다. 그것은 마치 말로 다 할 수 없고 견뎌낼 수도 없는 절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 것만 같았다. 바로 발푸르기스의 리듬이 괴물처럼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 우주적 음색 속에는 태초부터 존재해 온 시공간의 요동이 응축되어 있었다. 물질의 구체들이 겹겹이 쌓인 그 이면에는 언제나 그런 요동이 숨어 있다. 그러다 때때로 일정한 울림이 되어 터져 나오며, 존재의 모든 층위에 희미하게 스며든다. 그

리고 그 울림은 세상 곳곳에 공포스러운 시기들이 지닌 기괴한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길먼은 다시금 비좁고 보랏빛 조명이 감도는, 경사진 바닥의 다락방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곳에는 고서들이 꽂힌 낮은 책장과 벤치, 탁자, 기묘한 물건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자리한 삼각형 모양의 틈새가 그대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고 하얀 형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옷이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어린 남자아이였다. 반대편에는 기괴한 손잡이가 달린 번뜩이는 칼을 오른손에 든 채, 흉측한 미소를 짓고 있는 괴물 같은 노파가 서 있었다. 노파의 왼손에는 기묘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비율이 이상하고 창백한 금속 사발이 들려 있었으며, 그 사발에는 가느다란 옆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노파는 길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의식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 언어는 마치 『네크로노미콘』에 조심스럽게 인용된 구절처럼 들렸다.

장면이 선명해지자, 그는 노파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빈 사발을 탁자 너머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 길먼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쭉 뻗어 두 손으로 사발을 붙잡았다. 그 순간, 사발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찰나, 왼쪽의 삼각형 모양을 한 검은 심연 위로 브라운 젠킨의 혐오스러운 형체가 기어 올라왔다. 노파는 길먼에게 사발을 특정 위치에 고정하라는 몸짓을 보냈다. 그러고는 작은 백색 희생양 위로, 오른손이 닿는 한 가장 높이 거대하고 기괴한 칼을 치켜들었다. 이빨이 돋아난 털 뭉치 괴물은 알 수 없는 의식을 계속하듯 낄낄거리기 시작했고, 마

녀는 그에 맞춰 혐오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내뱉었다. 정신과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지만, 길먼은 살을 파고드는 듯한 날카로운 혐오감이 전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에 들린 가벼운 금속 사발이 떨렸다. 잠시 후, 칼이 아래로 내리꽂히는 순간 마법 같은 환각이 완전히 깨졌다. 길먼은 종소리 같은 쟁강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발을 떨어뜨렸고, 그 끔찍한 행위를 막으려 미친 듯이 손을 뻗었다.

그는 순식간에 테이블 끝자락의 경사진 바닥을 타고 올라가, 노파의 손톱에 움켜쥐여 있던 칼을 낚아챘다. 칼은 좁고 삼각형으로 움푹 파인 구덩이 너머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전세는 역전되었다. 살의가 가득한 노파의 손톱이 그의 목을 단단히 조여왔고, 주름진 얼굴은 광기 어린 분노로 뒤틀렸다. 목에 걸린 싸구려 십자가 목걸이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이 물건을 마주했을 때 저 사악한 괴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다. 노파의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그는 숨이 막혀 죽어가는 와중에도 떨리는 손으로 셔츠 안을 더듬어 금속 십자가를 찾아냈다. 그는 목걸이 줄을 끊어내고 십자가를 움켜쥐었다.

그 장치를 본 마녀는 공포에 질린 듯했다. 그녀의 손아귀에 힘이 풀린 틈을 타, 길먼은 마침내 그 손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었다. 그는 강철처럼 단단한 발톱을 목에서 떼어냈다. 만약 그 발톱에 다시 힘이 들어가 길먼의 목을 조여 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 노파를 낭떠러지 아래로 끌어내렸을 것이다. 이번에는 길먼도 똑같이 갚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괴물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녀가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십자가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휘감았다. 잠시 후, 그는 마녀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걸이를 세게 잡아당겼다. 마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동안, 길먼은 무언가가 자신의 발목을 깨무는 것을 느꼈다. 브라운 젠킨이 그녀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길먼은 사나운 발길질로 그 불길한 생물을 낭떠러지 아래로 차버렸다. 그리고 저 멀리 아래층 어딘가에서 녀석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그 늙은 마녀를 죽였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마녀가 쓰러진 그대로 바닥에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몸을 돌리던 그는 탁자 위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릴 뻔한 광경을 목격했다. 질긴 근육과 악마 같은 기민함을 지닌 네 개의 작은 손을 가진 브라운 젠킨은, 마녀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이 부지런히 제 할 일을 해치웠고, 그리하여 길먼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길먼이 칼날로부터 희생자의 가슴을 지켜냈건만, 저 털 숭숭한 불경스러운 괴물의 노란 송곳니가 그 짓을 대신 손목에 가해버린 것이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그릇은, 이제 생명을 잃은 작은 사체 곁에 가득 찬 채 놓여 있었다.

꿈속의 망상 속에서 길먼은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바트의 지옥 같은 이질적 리듬을 들었다. 그는 그곳에 검은 사나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수학적 계산과 뒤섞였다. 길먼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정상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각도들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방 바로 위에 있는, 아득한 옛날부터 봉인되어 온 다락방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하지만 경사진 바닥이나 허리를 한참 숙여야 하는 출구를 통해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러웠다. 게다가 꿈속의 다락방을 탈출한다 한들, 그것이 그저 꿈속의 집—그가 찾고자 하는 실제 장소가 비정상적으로 투영된 환영—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쩌란 말인가. 길먼은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 속에서 꿈과 현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모호한 심연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끔찍할 것이다. 발푸르기스의 리듬이 진동할 것이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죽을 만큼 두려워하던,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주의 고동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낮고 기괴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박자가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바트의 때가 되면 그 떨림은 언제나 거세지며, 다른 세계들까지 뻗어 나가 입문자들을 이름 없는 의식으로 불러들였다. 사바트에서 불리는 찬송의 절반은 이 희미한 고동 소리를 본떠 만든 것이었다. 공간의 충만함이 그대로 드러난 그 소리는 지상의 어떤 귀로도 견뎌낼 수 없는 것이었다.

길먼은 자신의 본능이 자신을 올바른 공간으로 인도해 줄지 의심스러웠다. 자신이 은하계 너머 어딘가, 혹은 무지한 악마 술탄 아자토스가 군림하는 혼돈의 궁극적 공허, 그 소용돌이치는 검은 소용돌이 속의 어느 곳에 떨어진다면 어쩌나. 촉수 괴물들이 사는 도시 위,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테라스가 있는 어느 먼 행성의 초록빛 언덕에 내려앉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가 몸을 던지기 직전, 보랏빛 광채가 꺼지며 그는 완전한 암흑 속에 남겨졌다. 마녀, 늙은 케지아 메이슨, 나하브—그것은 분명 그녀의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저 아래 심연에서 들려오는 사바트의 먼 찬가와 브라운 젠킨의 흐느낌 사이로, 길먼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거칠고 기괴한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조 마주레비치—기어다니는 혼돈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가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의 비명으로 변해 있었다. 열병 같은 꿈의 소용돌이 위로 냉소적인 현실의 세계가 충돌했다. 이아! 슈브 니구라스! 천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염소여……

동이 트기 훨씬 전, 사람들은 기묘한 각도로 뒤틀린 길먼의 낡은 다락방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 끔찍한 비명 소리에 데스로셰와 초인스키, 돔브로프스키, 마주레비치가 즉시 달려왔고, 의자에서 깊이 잠들었던 엘우드마저 잠에서 깨어났다. 길먼은 살아 있었으나, 눈을 부릅뜬 채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할 뿐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의 목에는 누군가 살의를 담아 움켜쥔 듯한 손자국이 선명했고, 왼쪽 발목에는 쥐에게 물린 듯한 처참한 상처가 나 있었다. 옷차림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으며 조의 십자가도 사라진 상태였다. 엘우드는 친구의 몽유병이 대체 어떤 새로운 형태로 변질되었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워 몸을 떨었다. 마주레비치는 자신이 기도를 올린 끝에 어떤 '징조'를 보았다고 말하며 넋이 나간 듯 보였는데, 경사진 칸막이 너머에서 쥐가 찍찍거리며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미친 듯이 성호를 그었다.

꿈을 꾸는 이가 엘우드의 방에 있는 소파에 자리를 잡자, 사람들은 말코프스키 박사를 불러왔다. 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로,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만한 이야기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박사는 길먼에게 두 차례 피하 주사를 놓았고, 그 덕분에 길먼은 마치 자연스러운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몸의 긴장이 풀렸다. 낮 동안 환자는 이따금 의식을 되찾았으나, 최근에 꾼 꿈의 내용을 엘우드에게 두서없이 속삭일 뿐이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새롭고도 당혹스러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던 길먼은, 이제 완전히 귀가 먹어버렸다. 급히 다시 호출된 말코프스키 박사는 엘우드에게 길먼의 양쪽 고막이 모두 파열되었다고 전했다.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내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거대하고 강렬한 충격음이 가해진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대체 어떤 소리가 들렸기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 소리가 미스카토닉 계곡 전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직한 의사인 박사조차 설명할 길이 없었다.

엘우드는 대화 내용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기에,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은 꽤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두 사람 모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최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어떻게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 오래되고 저주받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녁 신문에는 새벽녘 메도우 힐 너머 협곡에서 기이한 축제를 벌이던 무리들을 경찰이 급습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그곳에 있는 백색 석조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미신적인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없었으나, 흩어져 달아나던 도망자들 사이에서 거구의 흑인 한 명이 목격되었다고 전했다. 다른 기사에서는 실종된 아이 라디슬라스 볼레이코의 흔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악의 공포는 바로 그날 밤 찾아왔다. 엘우드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그 여파로 신경쇠약에 걸려 학기 남은 기간 내내 대학을 다닐 수 없었다. 저녁 내내 벽 안쪽에서 쥐들이 갉아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엘우드와 길먼이 잠자리에 든 지 한참이 지났을 무렵,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엘우드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손님이 머무는 소파로 달려갔다. 그곳에 누운 남자는 마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듯,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고, 담요 위에는 커다란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다.

엘우드는 차마 그에게 손을 대는 것조차 망설였다. 하지만 비명과 몸부림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사이 돔브로프스키와 초인스키, 데스로셰, 마주레비치, 그리고 꼭대기 층 세입자까지 모두 문가로 몰려들었다. 집주인은 아내를 보내 말코프스키 박사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그때, 피로 얼룩진 침구 아래에서 쥐를 닮은 거대한 형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것은 바닥을 가로질러 근처에 새로 뚫린 구멍 속으로 재빨리 숨어들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다. 박사가 도착해

그 끔찍한 이불을 걷어내기 시작했을 때, 월터 길먼은 이미 숨져 있었다.

길먼을 죽인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야만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의 몸에는 마치 터널이라도 뚫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파먹어 버린 것이다. 쥐약을 써서 해결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돔브로프스키는 광분했다. 그는 임대 계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을 모두 데리고 월넛 가에 있는 낡았지만 그나마 덜 음산한 집으로 이사했다. 한동안 가장 골칫거리는 조 마주레비치를 진정시키는 일이었다. 침울한 성격의 직기 수리공인 그는 도무지 술에서 깨어날 줄 몰랐고, 유령 같은 끔찍한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징징거리며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그 끔찍했던 마지막 밤, 조는 길먼의 침대에서 근처 구멍으로 이어지는 진홍빛 쥐 발자국을 살펴보려 몸을 굽혔던 모양이다. 카펫 위에서는 발자국이 아주 희미했지만, 카펫 끝과 걸레받이 사이에는 바닥재가 드러난 부분이 있었다. 마주레비치는 바로 그곳에서 괴물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발자국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기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바닥에 찍힌 발자국은 분명 일반적인 쥐의 발자국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하지만 초인스키와 데스로셰조차 그 흔적이 마치 네 개의 아주 작은 사람 손바닥 자국 같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집은 다시는 세를 놓이지 않았다. 돔브로프스키가 떠나자마자 집에는 마지막 황량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집의 악명 높은 과거뿐만 아니라, 새로이 풍겨 나오는 악취 때문에 그곳을 멀리했다. 전 집주인이 뿌려둔 쥐약이 결국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그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동네의 골칫덩이가 되었다. 보건당국은 악취의 근원이 동쪽 다락방 위와 옆의 밀폐된 공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곳에 죽은 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당국은 오랫동안 봉인된 그 공간들을 굳이 뜯어내어 소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악취는 곧 사라질 것이고, 그 지역 자체가 결코 청결한 기준을 따지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5월의 전야와 할로마스 직후만 되면, 마녀의 집 위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풍긴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이웃들은 이러한 방관을 묵인했지만, 악취는 그 집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결국 집 검사관은 그 집을 거주 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폐쇄했다.

길먼이 꾼 꿈과 그를 둘러싼 정황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엘우드가 남긴 생각들은 때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정도였으나, 그는 이듬해 가을에 대학으로 돌아와 이듬해 6월에 졸업했다. 마을을 떠돌던 유령에 관한 소문도 많이 잦아든 상태였다. 실제로 그 폐가가 무너질 때까지 유령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간혹 있긴 했지만, 길먼이 죽은 이후로 케지아 메이슨 노파나 브라운 젠킨이 나타났다는 새로운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은, 훗날 어떤 사건들로 인해 고대의 공포에 관한 지역의 속삭임이 갑작스럽게 다시 살아났을 때 엘우드가 아컴에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는 나중에 그 일을 전해 들었고, 그로 인해 어둡고 혼란스러운 추측에 빠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실제로 그 사건들에 맞닥뜨리는 것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을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1931년 3월, 강풍이 몰아치면서 비어 있던 마녀의 집 지붕과 거대한 굴뚝이 파손되었다. 검게 그을리고 이끼가 낀 지붕널과 부식된 판자와 목재, 그리고 부서진 벽돌들이 뒤엉킨 채 다락방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잔해들은 아래층 바닥까지 뚫고 내려갔다. 다락층 전체가 위에서 쏟아진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으나, 낡아빠진 건물을 어차피 허물 예정이었기에 누구도 그 난장판을 치우려 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12월에 건물을 철거하기에 이르렀고, 마지못해 겁에 질린 채 길먼의 옛 방을 정리하던 인부들 사이에서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래된 경사진 천장이 무너지며 쏟아져 나온 잔해 속에는, 일꾼들이 작업을 멈추고 경찰을 불러낼 만큼 기이한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 이후 경찰은 검시관과 대학 교수들을 차례로 불렀다. 그곳에는 뼈들이 있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짓이겨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뼈였다. 그런데 이 뼈들의 연대는 명백히 현대의 것이었다. 이는 머리 위 낮은 경사 천장 아래, 인간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은밀한 은신처의 아주 오래된 시대적 배경과 기묘하게 어긋났다.

검시관의 주치의는 뼈 중 일부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썩어서 갈색으로 변한 천 조각들과 뒤섞여 있던 다른 뼈들은, 체구가 작고 허리가 굽은 노년의 여성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잔해를 세밀하게 걸러낸 결과, 붕괴 당시 깔려 죽은 쥐들의 작은 뼈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송곳니에 갉아 먹힌 듯한 오래된 쥐 뼈들도 나왔는데, 이 뼈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종종 논쟁과 고찰의 대상이 되곤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물건들 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진 수많은 책과 서류 조각들이 있었고, 훨씬 더 오래된 서적과 문서들이 완전히 부식되어 남긴 황색 먼지도 함께 흩어져 있었다. 예외 없이 모든 물건은 가장 고차원적이고 끔찍한 형태의 흑마술을 다루고 있는 듯했다. 일부 물건들은 분명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건들의 연대가 왜 그렇게 최근인지에 대해서는 발견된 현대인의 유골만큼이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더욱 큰 미스터리는 발견된 서류들의 상태와 워터마크를 통해 볼 때, 최소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연대 차이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적힌 비뚤비뚤하고 고풍스러운 필체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것은 파손된 잔해들 사이로 흩어져 있던, 도저히 설

명할 수 없는 온갖 물건들이다. 물건들의 형태와 재질, 제작 방식과 용도 모두가 그 어떤 추측조차 허용하지 않을 만큼 기괴했다.

이 물건들 중 하나는 미스카토닉 대학의 교수 여러 명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것은 형편없이 훼손된 괴상한 형상이었다. 그것은 길먼이 대학 박물관에 기증했던 그 기이한 조각상과 분명히 닮아 있었다. 다만 그 크기가 훨씬 더 컸고, 금속이 아닌 기묘한 푸른빛을 띠는 돌로 만들어졌으며, 해독할 수 없는 상형문자가 새겨진 독특한 각도의 받침대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달랐다.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여전히 그 기괴한 문양의 정체를 밝히려 애쓰고 있다. 발견 당시 안쪽에 불길한 갈색 얼룩이 묻어 있던, 찌그러진 가벼운 금속 그릇에 새겨진 문양 말이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발견된, 사슬이 끊어진 현대식 니켈 십자가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나 잘 믿는 할머니들은 저마다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조 마주레비치는 전율하며 그 십자가가 수년 전 불쌍한 길먼에게 자신이 주었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떤 이들은 쥐들이 이 십자가를 봉인된 다락방까지 끌고 올라갔다고 믿는다. 반면, 길먼이 살던 옛 방 구석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조를 포함한 또 다른 이들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냉정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너무나도 거칠고 환상적인 가설들을 내놓고 있다.

길먼의 방에 있는 기울어진 벽을 뜯어내자, 그 칸막이와 집의 북쪽 벽 사이로 봉인되어 있던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드러났다. 그 공간 안에는 방 내부보다 구조적 잔해물이 훨씬 적게 들어 있었다. 비록 그곳

에 쌓인 오래된 잔해들이 워낙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이라, 이를 치우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릴 정도였지만 말이다. 요컨대, 그곳의 바닥은 어린아이들의 뼈가 가득한 말 그대로의 납골당이었다. 어떤 뼈들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으나, 또 다른 것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 내린 아주 먼 옛날의 것들까지 끝없이 층을 이루며 쌓여 있었다. 이 깊은 뼈의 층 위에는 거대하고 기괴하며, 화려하고도 이국적인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잔해들이 쌓여 있었다.

이 잔해더미 한가운데, 쓰러진 판자 하나와 무너진 굴뚝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 더미 사이에 어떤 물건 하나가 끼어 있었다. 그것은 이 저주받은 유령의 집에서 발견된 그 어떤 것보다도 아컴의 사람들을 더 큰 혼란과 은밀한 공포, 그리고 노골적인 미신적 소문 속으로 몰아넣을 운명이었다.

그 물체는 부분적으로 짓눌린 거대한 병든 쥐의 유골이었다. 이 쥐의 기괴한 형태는 미스카토닉 대학 비교해부학과의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동시에 그들이 유독 입을 다물게 만드는 기묘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 유골에 관해 외부로 흘러나온 정보는 거의 없으나, 유골을 발견한 인부들은 쥐의 몸에 붙어 있던 길고 갈색빛이 도는 털에 대해 경악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곤 한다.

그 작은 발의 뼈에는 쥐보다는 오히려 작은 원숭이에 더 가까운, 물건을 움켜쥘 수 있는 특징이 남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사나운 황색 송곳니가 돋아난 작은 해골은 극도로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

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마치 인간의 해골을 기괴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흉내 낸 축소판처럼 보였다. 인부들은 이 신성 모독적인 유물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려 십자가를 그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성 스타니슬라우스 성당에서 감사의 촛불을 밝혔다.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그 날카롭고 유령 같은 웃음소리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였다.

1933년에 출판된 저작물은 1960년 또는 1961년에 저작권 갱신이 가능했다. 즉, 출판 또는 등록 후 27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8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할 수 있었다.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1962년 1월 1일부로 퍼블릭 도메인(공유 저작물)이 되었다.

제시해주신 텍스트가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로, 번역할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을 원하시는 **H.P. 러브크래프트의 「마녀의 집의 꿈(The Dreams in the Witch-House)」 원문**을 입력해 주시면, 설정하신 모든 규칙(가독성, 문체, 고정 역어, 정확성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